

아이티에 평안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최근 갱단의 폭동으로 무질서 속에 있는 아이티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 교회로 나서는 평범한 길음조차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아이티에는 안정된 질서와 일상의 회복이 간절합니다.

성경은 불안에 빠진 이들의 삶을 위로하고, 교회가 새롭게 회복할 힘을 더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4년 가을 제70권 3호



위기의 미얀마,
성경이 희망이 됩니다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세상을 밝히는 말씀의 빛

한글 성경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전통 사회의 구습을
타파·개혁하는 데 앞장서며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 잡혀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현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현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외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한국

2024 가을 제70권 3호

02 포도에세이

제가 받은 성경을
매일 즐겁게 읽겠습니다

04 커버스토리

위기의 미안마,
성경이 희망이 됩니다

08 2024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2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10 성경을 받은 사람들

차별과 외로움 속 위로가 되는 성경

12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거룩한 위엄과 위대한 권능의
말씀인 성경, 공감과 소통의 언어로
드라마틱한 새 옷을 입었습니다

14 카리브해를 위한 기도

카리브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6 성경을 전하다

몽골에서 복음의 길을 걷다

18 후원 이야기

22 대한성서공회 소식

- 2023 세계 성서 반포 현황
- 서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 사역 보고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4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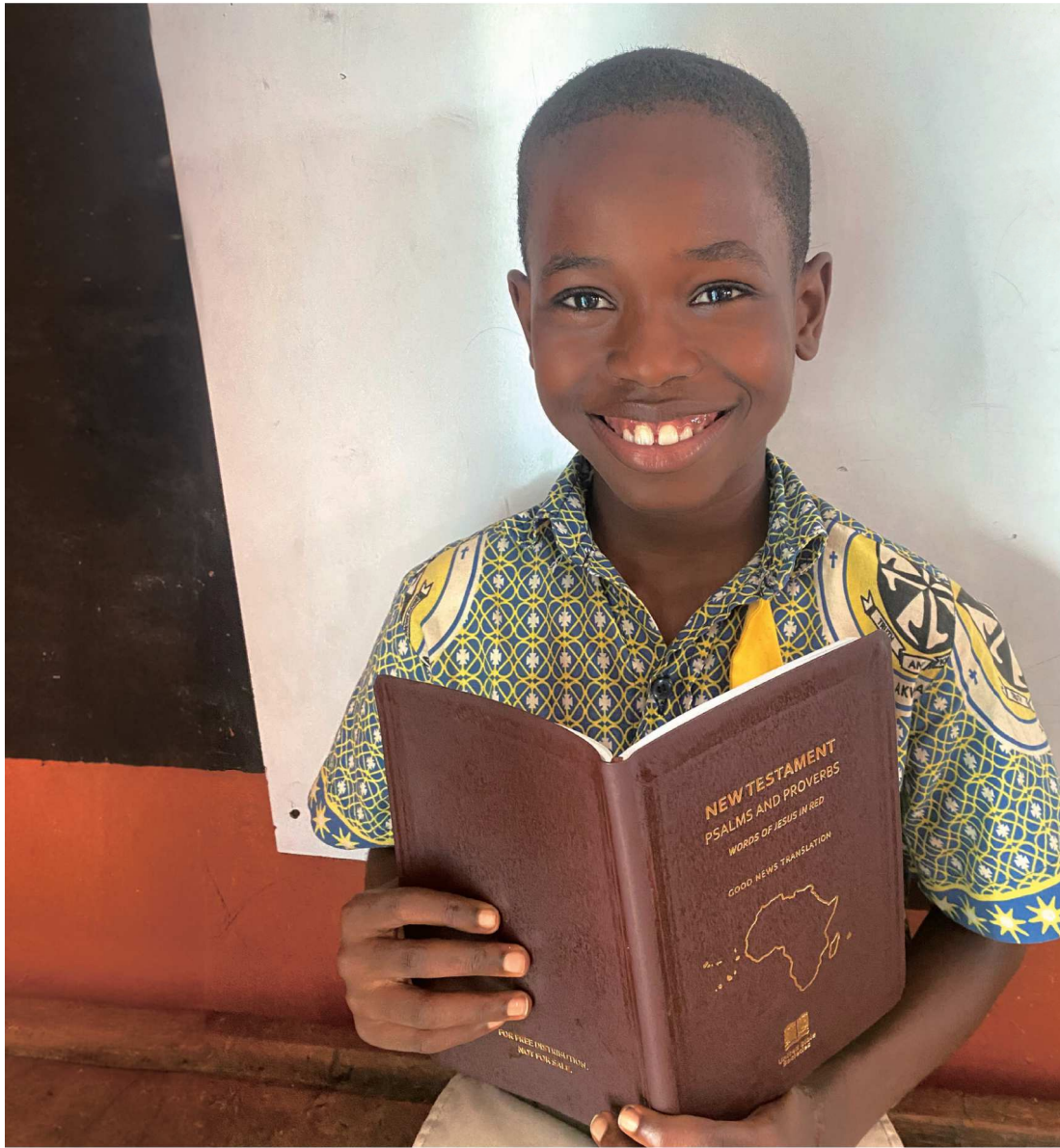
· 인쇄인 인쇄처 편집 : (주)타라티피에스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유통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성경을 받은 제임스(James)



제가 받은 성경을 매일 즐겁게 읽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인구의 절반은
15-35세 젊은이들입니다.
가나성서공회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임스(James)도 성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교회에서 항상 배웠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요.
제가 받은 성경을 매일 즐겁게 읽겠습니다.”

위기의 미얀마, 성경이 희망이 됩니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정권이 들어선 후 3년 6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미얀마 전역에서 일어나는 무력 충돌로 민간인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부 재집권 이후 5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11만여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8만여 가구가 불태워지고 200여 교회가 전소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며 오랜 기간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이어오던 미얀마 시민들도 계속되는 민간인의 피해에, 반군과 시민방위군을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국가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빈국, 미얀마

한국전쟁 시기 미얀마는 5만 달러 규모의 쌀을 우리나라에 지원했을 정도로 아시아 최대 쌀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스과 루비, 사파이어 등 천연자원도 풍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난 60여 년간 되풀이된 군사정부의 역사와 쇄국정책으로 2023년 기준 미얀마는 아시아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현 정권은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고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며, 세계 최대 대리석 좌불상(약 7조원 규모)을 짓는 등에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미얀마의 경제상황은 더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차별과 박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얀마는 다수 버마족과 135개의 소수민족과의 갈등, 그리고 소수민족을 향한 차별대우와 21세기에도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집단학살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종족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족 간의 갈등이 다수 불교 집권층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 포장되어 종교·이념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군부는 소수민족인 친족과 카친족의 교회를 습격하여 방화하고, 재산을 빼앗아가며 교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불안에 떨며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마을을 떠나 난민이 되기도 합니다.**

미얀마 선교 현황

미얀마 선교는 1813년 미국인 선교사 저드슨(Adoniram Judson)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저드슨 선교사는 일생을 헌신하며 미얀마어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얀마 88%의 사람들은 불교도이며, 예수님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 무지합니다.

미얀마 기독교는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전체 인구의 6%가 기독교인이지만 친 부족의 경우 80~90%가 기독교인일 정도로 소수민족의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135개의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200여 개 언어 중에 성경전서가 번역된 언어는 단 50개에 불과합니다.

▼ 2009년 군부정권이 지은 불탑 '우빠따산띠 파고다'





▲미얀마 조통어 첫 번역 성경 봉헌식 현장

이와 같은 미얀마 선교의 어려움에 공감한 여러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지난 10년간 12개의 소수민족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소수민족의 성경 봉헌식은 후원받은 모국어 성경을 함께 낭독하며 온 마을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감격과 축제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봉헌식 후 낭떠러지에서 전복된 차량

2017년 미얀마 서부에서 열린 조통어 성경 봉헌식에 참석 후 돌아오던 길, 미얀마성서공회 코이 총무가 타고 있던 차는 300미터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3일간 의식불명상태로 5번 병원을 옮기고 2번의 수술 후 4달간 침상에 누워 있어야 했던 순간을 회상하며 코이 총무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시 118:17)”라고 한 시편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코이 총무는 오늘도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남아 한 사람에게라도 성경을 더 전하는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미얀마는 헌법상 예배할 자유는 있지만 실제로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받기 위해서 몇 달, 때로는 몇 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미얀마 성경의 대부분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제작하며, 성경이 선적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23년 한해 미얀마성서공회를 통해 4만 권의 성경을 반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미얀마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갑니다. 불안정한 정세 속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집을 떠납니다. 그곳에는 성경도 있습니다. 많은 성경이 불에 타고 비에 젖어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폭력이 난무하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전보다 더 많은 성경이 필요한 때입니다.”

- 미얀마성서공회

코이 람 탕(Khoi Lam Thang) 총무



▲양곤 성서회관에서 각 지방으로 전달되는 성경

사회적 혼란으로 위기에 처한 미얀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부군과의 긴장관계,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일상이 무너진 미얀마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을 살아낼 희망이 되는 말씀, 성경을 보내주세요. ☎



미얀마 긴급 모금
영상 보기



10만 원의 현금으로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성경이 컨테이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2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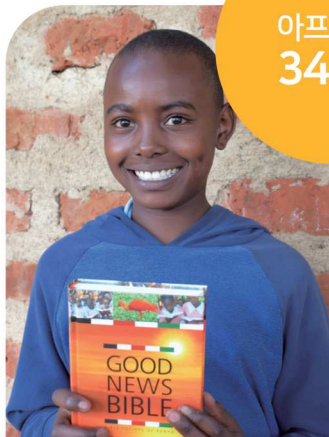
• 굵은 글씨 -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4.09.02 기준)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하신 성경은 전 세계 미지립
성서공회들의 성경 기증 프로그램 및 성경 보급 사업 지원에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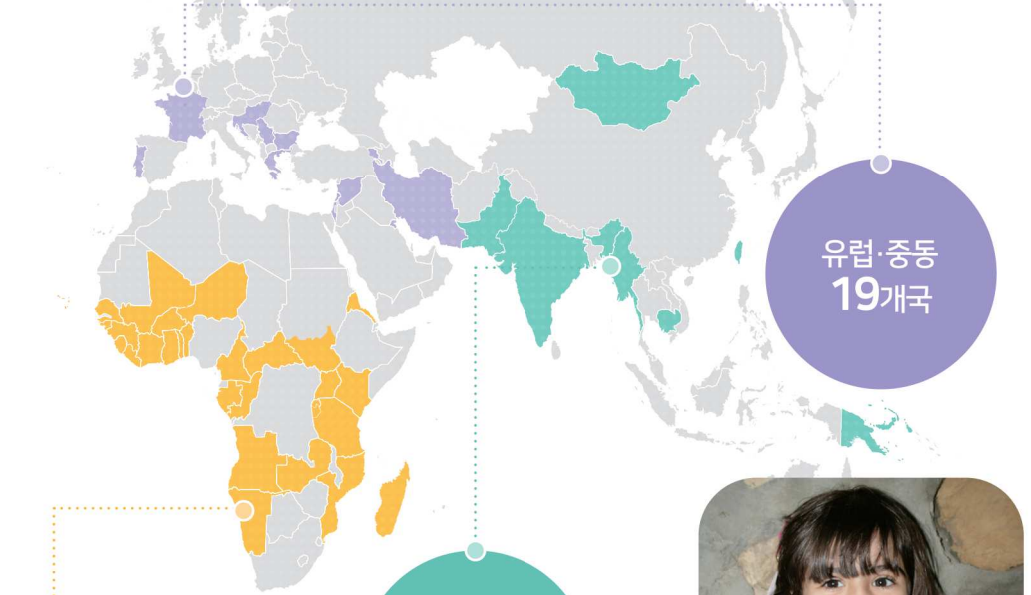
아메리카
18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34개국

가나,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중동
19개국



아시아·태평양
11개국



남태평양,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걸프, 그리스, 레바논,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아르메니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차별과 외로움 속 위로가 되는 성경

▲ 걸프 지역에 살고 있는 인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기도 모임

걸프(Gulf)는 페르시아만을 영국에서 부르던 이름으로 오늘날 이 지역에는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걸프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지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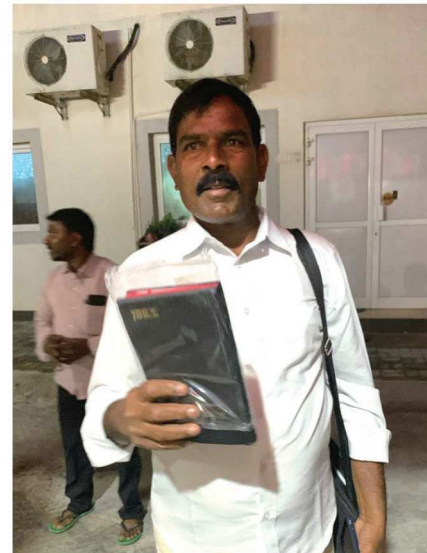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 신분으로 걸프 지역에 이주해 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 학대,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걸프성서공회는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소외된 이주 노동자들에게 성경을 보급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주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주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자녀들이 저희와 같이 문맹이 되지 않도록 돈을 벌어 고향에 보내기 위해 바레인에 왔습니다.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희에게 영화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최신 할리우드 영화를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저희의 모국어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나오자 그곳은 눈물바

다가 되었습니다. 제 삶이 문제와 투쟁으로 가득하다고 여겼는데, 영화 속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일들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후 고향에 있는 아이들과 통화할 때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곧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려는 저를 보며 기쁨을 느낍니다.”

-프라싸드(Prasad)/걸프 지역 이주 노동자



▲ 성경을 받은 프라싸드(Prasad)

“저는 인도에서 13살에 결혼해 14살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저를 때리곤 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두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바레인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삶도 녹록치 않습니다. 저는 가정부로 일을 하는데 몇몇 집주인들은 저를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과 두려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성서공회는 그런 저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들은 말씀의 교훈을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이제 걱정하고 화내지 않습니다.”

-마리암(Mariam)/걸프 지역 이주 노동자

걸프 지역 이주 노동자들은 차별과 외로움 속에서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전달 받은 성경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또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동료들과 성경을 함께 읽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

본 공회에서는 한국교회와 후원자님들의 후원으로 금년 4월에 걸프성서공회에 성경을 기증하였습니다.

거룩한 위엄과 위대한 권능의 말씀인 성경, 공감과 소통의 언어로 드라마틱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김민철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 부원장,
영산신학연구원 부학장,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크리스천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말씀입니까?”라고 물으면 아마도 대다수는 시편의 은혜로운 구절 중에 하나를 암송하듯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누군가에게 고통의 시간을 버텨 내는 격려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 내는 위로의 말씀으로 신앙과 삶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시편은 그 이름처럼 ‘시’(詩) 혹은 ‘노래’로 된 기도문의 모음집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낭송되는 시편을 들어보면 읽는 것만으로도 운율과 리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편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느낌이 많이 반감되거나 퇴색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

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
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
셨나이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시편
8:3-5)

위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번역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시 8:5상)로 번역했던 이전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번역보다는 분명히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시편의 운율과 리듬감을 살리는 데는 원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와 비교해 아래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보곤 하거든요. 주님의 하늘, 주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요. 달과 별들

도요. 주님이 마련해 두신 것들입니다. 사
람이 무엇이라고 그를 기억해 주시며, 인
간이 무엇이라고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은 그를 조금 모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움과 존엄함이라는
왕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새한
글성경 신약과 시편』 시편 8:3-5)

어떻습니까? 확실히 시적인 느낌이 살아있지요? 그분만이 아닙니다. 어제 저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제 두 딸에게 이 두 버전의 시편 구절을 읽어 주고 그 느낌을 물었습니다. 먼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읽어 주자, 요즘 문제시되는 ‘문해력’이라는 이슈에 걸맞게, 중학생인 둘째 딸이 ‘인자’ ‘영화’ ‘존귀’ ‘관’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즉시 답을 해주지 않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 말들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이어 “어떤 것이 더 노래 가사 같니?”라고 물었더니 두 딸 모두 주저 없이 두 번째 것 즉,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우리 말과는 다른 히브리어 번역의 어순을 최대한 살려 번역함으로 원문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 어려운 한자도 좀 더 쉽게 풀어 줌으로써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세대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언어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제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읽으며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성경이 생겨 너무 좋습니다.

더불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연출되는 매력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무수한 사연들을 담고 있는 시편에 드라마틱한 호흡을 불어넣어 그 생동감을 느끼게 해 주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으로 수많은 크리스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 23장을 꼭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바라기는 아직 출간되지 않은 시편 이외의 구약 본문도 어서 출간돼 마음껏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가 풀밭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내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올바른 길로, 여호와와 이름을 위해서라네.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못될까 봐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 됩니다. ...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내 삶의 모든 날에! 나 머물고 싶어, 여호와 의 집에 오랜 날 동안!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시편 23:1-6)

카리브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북상하는 허리케인 베릴의 이동 경로

지난 7월, 미국과 중남미 사이에 위치한 카리브해(Caribbean Sea)에서 초대형 허리케

인 '베릴(Beryl)'이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은 풍속에 따라 가장 약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구분되는데, 베릴은 최근 100년 사이 발생한 허리케인 중 가장 급속하게 '5등급 슈퍼태풍'으로 발달한 허리케인으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베릴이 지나간 카리브해의 여러 섬들은 나무가 뽑히거나 전기가 수도 공급이 끊겨 주민들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일부 섬은 거의 모든 주택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자도 발생하였습니다.

베릴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네덜란드령 카리브 성서공회와 서인도제도성서공회의 총무는 기도문을 올리며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생명, 그리고 나라를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 서인도제도성서공회

코트니 스튜어트(Courtney Stewart) 총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가오는 허리케인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자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안전을 주관하여 주시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함께할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 네덜란드령 카리브성서공회

아르민 엘리스(Armin Elisa) 총무

허리케인으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가족, 이웃을 잃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도 위로와 희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카리브해가 허리케인 '베릴'의 피해로부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기도 제목 🙏

1. 허리케인 베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성서공회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공급하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몽골에서 복음의 길을 걷다

전국현 목사(창조교회)

제가 섬기는 창조교회는 1년에 한 번 '성경 보내기'를 위한 헌금의 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경이 흔해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 권의 성경을 종류별로, 크기별로, 역본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 저희는 현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제작해서 보내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저희 교회는 몽골에 성경을 보내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희는 몽골 성경을 직접 가지고 몽골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단기 선교 팀을 꾸려 성경이 필요한 땅을 직접 밟고, 사람들을 만나 전달하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2024년 6월 24일~7월 1일, 창조교회 성도들과 함께 7박 8일의 여정으로 몽골 땅을 밟

았습니다. 하늘, 초원, 바람, 별까지 몽골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가득 담고 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저희는 몽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몽골의 날씨, 먹거리, 일상적 삶뿐만 아니라 기후, 지리, 문화(유목민 문화 등), 종교, 도시, 환경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까지. 이 기회를 통해 몽골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몽골에 성경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제2의 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전의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같이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500명의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가 3~4개나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교회는 수도 울란바토르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몽골의 영토는 우리나라의 15배 가까이 되지만, **인구 밀도가 낮고 마을 간 거리가 멀어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성경이 없는 경우가 있고, 선교팀을 통해 복음을 전해 받았다고 성경이 없고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다시금 토속신앙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 몽골 땅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경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일정 속에 서로, 동으로, 남으로 큰 땅을 다니느라 이동에만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귀한 걸음으로 말입니다.

고비 지역에서 만났던, 성경책 한 권씩 받아 들고 기쁨으로 활짝 웃었던 교회 어린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삶의 능력과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몽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 생명이 피어나고, 묶인 것에서 풀어지며, 몽골 땅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가득히 이루어져 가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9)



▲ 창조교회 성도로부터 성경을 받은 몽골 청소년의 모습



▲ 기증하는 <포르투갈어 성경> 앞 본 공회 권익현 사장, 김연옥 권사, 이상경 장로

상투메프린시페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이상경 장로, 김연옥 권사 - 상투메프린시페 <포르투갈어 성경> 950부 기증

2024년 5월 7일, 이상경 장로, 김연옥 권사가 정(창조교회)의 후원으로 상투메프린시페에 <포르투갈어 성경> 95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상경 장로 가정은 2년째 해외 성경 보내기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니제르에 이어 올해 상투메프린시페까지 총 3,363권의 성경을 후원했습니다.

미자립성서공회인 상투메프린시페성서공회를 대신하여 루소폰(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지역) 성서공회를 지원하는 포르투갈성서공회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포르투갈성서공회 리더 플레처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상투메프린시페에 성경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상경 장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성경을 보

내는 데 더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상투메프린시페는 아프리카 대륙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나라 경제는 대부분 관광과 코코아 생산에 의지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으로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불어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식량 같은 기본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성경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투메프린시페에 전해지는 <포르투갈어 성경> 950부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소망이 될 것입니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창조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몽골에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창조교회 - 몽골 <몽골어 성경> 2,870부 기증

2024년 6월 18일, 창조교회(홍기영 목사)의 후원으로 몽골에 <몽골어 성경> 2,87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창조교회 홍기영牧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내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실이 있는 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몽골성서공회 바야르 마그나이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보급하는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는 성경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후원해 주신 창조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몽골은 라마 불교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목 생활로 인해 넓은 땅에 흩어져 사는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고, 최근 기독교 복음 전파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기독교 성장률에 비해 몽골 사람들에게 보급할 성경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몽골에 전해지는 <몽골어 성경> 2,870부는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몽골 사람들과 성경이 없어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몽골의 목회자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몽골 사람들의 복음화를 도울 것입니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개포동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도 한걸음 더 나아갈 르완다

개포동교회 - 르완다 <킨야르완다어 성경> 5,000부 기증

2024년 6월 19일, 개포동교회(이봉인 목사)의 후원으로 르완다에 <킨야르완다어 성경> 5,0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개포동교회 이봉인 목사는 “성경을 통해 르완다 지역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램을 전했습니다.

르완다성서공회 비아투르 루지비자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후원해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수많은 르완다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개포동교회가 함께해 주셔서 저희는 매우 기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푸른 보석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이지만 종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르완다 대학살’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르완다는 국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학살 이후 큰 혼란과 상처가 남아있는 르완다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용서를 통한 평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킨야르완다어 성경> 5,000부는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살 가해자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인생의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성남제일교회에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말라위성서공회 총무와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라위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남제일교회 - 말라위 <툼부카어 성경> 1,000부, <영어 성경> 400부 기증

2024년 7월 24일, 성남제일교회(홍정기 목사)의 후원으로 말라위에 <툼부카어 성경> 1,000부, <영어 성경> 4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성남제일교회 홍정기 목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을 보냅니다. 성경을 보내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거기서 세례 받는 한 사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성경 출판 회의를 위해 방한한 말라위성서공회 음팍초 벨로 총무는 기증 예식에 참석하여 “여러분이 기증해 주신 성경은 말라위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들의 삶에 소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기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저개발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문맹률도 약 40%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인구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임에도 어려운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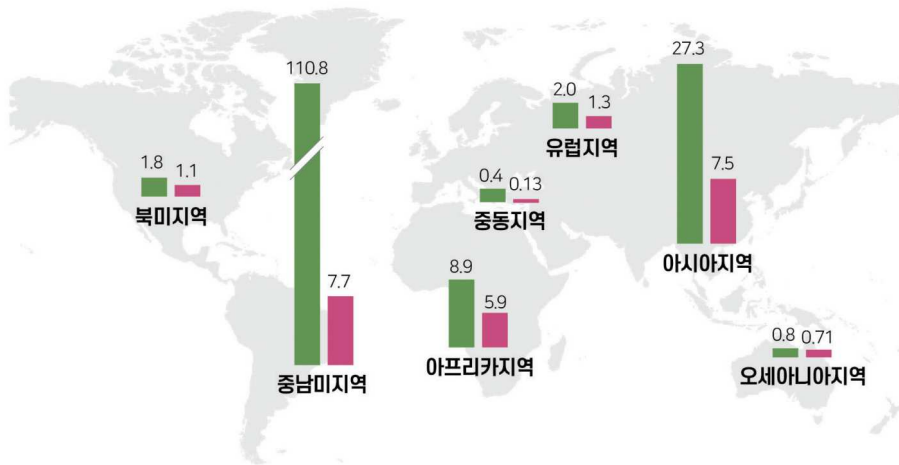
전해지는 <툼부카어 성경> 1,000부, <영어 성경> 400부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자교실에 전달되어 수업 교재로 사용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글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1 2023 세계 성서 반포 현황

2023년 한 해 동안 2,420만 부 이상의 성경이 반포되다

단위 : 백만 부

■ 총 성서 반포 부수 152.0
■ 성경전서 24.2 (인터넷다운로드 불포함)



▲ 2023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23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2천 4백 2십만 부 이상의 성경전서를 보급하였습니다.** 신약, 단편 성서와 어린이를 위한 성서를 포함하면 총 1억 5천 2백만 부가 넘는 성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과 필요에 따라 인쇄 성경과 디지털 성경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이동 중에는 앱이나 오디오 성경을 이용하고, 집에서는 인쇄 성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거나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인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한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가진 구매력의 한계, 성서공회들의 재정적 어려

움,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공급 체계가 파괴되거나 성서 반포가 정부 차원에서 검열,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성경 보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경에 대한 수요는 그 공급을 훨씬 더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성경을 받은 아이티의 청소년들

“성서공회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성서를 적극적으로 반포하여 성서 반포 기회를 늘려 나가는 한편, 인쇄 성경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성서 출판이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사무총장
더크 게버스(Dirk Gervers)

성경이 1만 명이 넘는 아이티 학생들의 삶을 밝히다

격동하는 아이티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가운데 아이티성서공회는 아이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일에 소명을 두고, 굳건히 그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특히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티성서공회는 20곳 이상의 학교에 소책자와 성경을 보급하여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성서를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이티성서공회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신앙이 갖는 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티성서공회는 사무실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갱단의 침입과 폭력 사건을 계기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티에 성서공회가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사역을 더욱 강조하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아이티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극심한 빈곤과 폭력 및 최근의 잔혹한 사건들로 씨름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티성서공회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주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

2 서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 사역 보고



▲ 서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 사역 보고 참석자들

2024년 6월 27일, 본 공회에서는 한국교회 특별후원회원을 초청하여 서아프리카 지역 5개국 성서공회 총무들로부터 성경 보급과 선교현황에 대한 사역 보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서아프리카 성경 보급 현황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성경을 기증받은 서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를 대표하여 카메룬성서공회 록 그노와 총무는 아프리카가 이슬람, 빈

곤, 문맹, 정치적 퇴보 등 많은 문제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한다는 사명을 갖고 사역하고 있음을 전하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성경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성경 보급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해 주신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아프리카 사역 보고
영상 보기



매일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재)대한성서공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 체 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